

청자골 장미, 색·향기로 소비자 '유혹'

강진군, 전남 장미 재배면적의 69% 점유 고품질 장미생산 화훼메카 1번지 위상 지켜



강진군의 '청자골 장미'가 선명한 색상과 짙은 향기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국도의 남단에 위치한 강진군은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또한

그 중심에는 땅심화훼영농법인(대표 조우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땅심화훼영농법인은 1995년도 설립돼 현재 회원 32명이 15.3ha의 면적에 장미를 주 작목으로 연간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진 청자골 장미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장미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30년 이상의 재배 노하우를 축적해 고품질 장미 생산으로 화훼산업 1번지 강진군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화훼 수요가 급감해 가격 폭락과 경매 유찰로 관내 장미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강진군은 장미 생산농가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남도청과 농협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에서 장미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총 8만1천 본, 7천9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화훼산업의 침체와 가격 불안

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내 장미 농가들은 전체 재배면적의 30%를 스프레이형(소분장미) 장미로 전환해 해외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신선한 장미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라남도과 강진군에서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화훼산업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화훼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관내 화훼재배 농가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강진군 화훼산업이 강진의 자랑이 되고 있다. 전남 장미 생산 1위인 강진 장미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 확충으로 서울과 광주 화훼공판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정평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자골 장미도 연중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직거래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 특산물' 미국 수출길 올라

마른 표고버섯, 무산김, 된장 등 5만 불 선예약

10월 말 LA 한남체인 플라톤, S-MART에서 상설 판매

장흥군 농수특산물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장흥군 260여 농가가 조합원인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은 미국 LA에 있는 전남 농수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을 위해 8월 28일 물품 선적을 마쳤다.

이번 수출에는 ㈜장흥식품, 한국기능성버섯, 장흥무산김(주) 등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수출품목은 마른 표고버섯, 무산김, 된장, 죽염 등 장흥이 자랑하는 농수특산물로 구성됐다.

약 5만 불이 선예약됐고, 최근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미국 현지의 관심

이 높아지면서 보다 많은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미국 상설판매 행사는 10월 말 LA 한남체인 플라톤, S-MART 두 개소에서 열린다.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원도 장흥군의 지원을 받아 현지 판매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지역업체의 유통망 개선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여러 행정적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선별진료소 고정형 건물로 신축

감염병 증가에 신속 대처, 내년 준공 예정 국도비 확보

해남군이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고정형 건물로 신축한다.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에 검사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고정형 선별진료소 신축사업을 추진, 코로나 발생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컨테이너와 간

이 텐트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영구적인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다.

고정형 선별진료소는 국도비 2억 2,8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소 주차장에 약 200㎡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신종감염병 유증상자의 선별진료 및 검체 채취 기능 외에도 의심환자와 의료진 간 동선분리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한다.

고정형 선별진료소는 평상시에는 휴역, 결핵환자 등 감염병 환자 진료실로 활용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도가 높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로 전환 사용하게 된다.

맹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내부 직원들의 위기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종합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보건으로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해남을 포함 전남 9곳 등 전국 59곳에서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 발표

강진군, 더불어 나아가는 강진형 일자리 창출 기대

강진군이 지난 1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의 발표에서는 강진군의 2019년 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비대면 화상평가로 실시됐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9년 일자리 예산으로 총 395억 원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분야 신규 일자리 5,509개를 창출해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서비스 확대에 기여했다. 이에 2018년 대비 고용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상용근로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강진군은 민선7기 취임 1년만인 2019년 6월, 분양률 100%를 달성한 강진산단 완판 사례를 비롯해 가우도 일대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민간산업자본 유치 부분을 중

점적으로 발표했다.

군은 2022년까지 더불어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업무 전반을 강화한다. 정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적 특성과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틈새 일자리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2년(2018년, 2019년) 연속 수상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강진산단 가동률 제고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9월 해양치유식품 조피볼락 선정

코로나19 지친 체력 보강 함황 아미노산 풍부한 우럭 추천

완도군이 9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조피볼락(우럭)'을 선정했다.

'조피볼락'은 쏘방이목 양볼락 과에 속하며, 완도에서 대량으로 양식되고 있다.

조피볼락이라는 이름보다 주로 '우럭'으로 불리 운다.

우럭은 비타민A를 풍부하게 함유

하고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필수 지방산과 철분, 칼륨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다.

특히 함황 아미노산 함량이 다른 어류보다 높아 간 해독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체력 보강에 우럭이 그만이다.

영양도 만점이지만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우럭은 회뿐 아니라 매운탕, 집, 탕수육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생선이다.

완도군에서는 우럭을 해풍에 반 건조하여 판매한다.

반 건조하여 꾸들꾸들 마른 우럭에 쌀뜨물과 무를 넣고 끓인 뒤 새우젓으로 간을 해 다진 마늘, 대파, 고추를 넣



고 한소금 더 끓인 우럭저국은 해장에 좋을 뿐만 아니라 별미로 꼽는다.

완도=김광수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